

某매체‘해병 잡는 해병대’보도 관련 입장

- 해병대는 그동안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 척결, 장병 인권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,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점과 피해 해병들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.
- 해병대는 10월 21일, 가혹행위를 최초 인지한 즉시 해병대사령부 차원에서 직접 헌병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10월 25일 비위 행위 부사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음.
- 또한 해당시설 가혹행위를 목격한 간부를 포함하여 4명 전원을 보직해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간에 2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편법행위가 포착되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음.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켰고 2차 가해나 보복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.
- 더불어 장병들의 최초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감찰 관계자를 식별하였으며 보고 누락의 경위 등을 소상히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벌할 예정임.
- 해병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복지시설, 취락지역 등을 포함한 전 부대 동시 정밀부대진단을 10월 24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, 11월 1일에는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권고사항을 추가 조치할 예정임. 또한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관리와 지휘기법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임.
- 해병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가운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겠음.